

동아시아연구원(EAI)과 言論NPO가 「제8회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 제8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한국의 글로벌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과 일본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겐론NPO (대표 구도 야스시)는 한일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일국민 상호인식조사’를 2020년 9월과 10월에 걸쳐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1시에 발표한다.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는 2013년부터 매년 실시했으며, 올해로 8회째를 맞는다. 본 조사는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양국 국민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0년 조사의 주요 결과는 10월 15일 오후 1시 한국과 일본에서 화상으로 연결하여 국내외 외신기자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 본 기자회견의 발표 자료는 (1) 본 요약발표문 (2) 주요 데이터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내외신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13:00~14:00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매화실
- 발표: 손열(동아시아연구원장, 연세대 교수), 구도 야스시(겐론NPO 대표)
- 대상: 한국 및 일본 포함한 국내외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언론사 기자
- 언어: 한국어(韓國語)-일본어(日本語) 동시통역

본 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이후 동아시아연구원과 겐론NPO가 공동으로 10월 16~17일 한국과 일본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개최하는 ‘제8회 한일미래대화’ <세계질서 변화 속 한일협력: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은 가능한가>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제8회 한일미래대화를 통해 양국의 민간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재 악화되고 있는 양국 국민 인식 차이를 좁히고 한일 관계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다.

◆ 10/15 기자회견 프로그램

| 시간 | 프로그램 |
|---------------|--|
| 13:00 ~ 13:05 | 인사말 - 손 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연세대 교수 - 구도 야스시 겐론NPO대표 |
| 13:05 ~ 13:20 | 2020 <한일상호인식조사> 한국 조사 결과 소개 - 손 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연세대 교수 |
| 13:20 ~ 13:35 | 2020 <한일상호인식조사> 일본 조사 결과 소개 - 구도 야스시 겐론NPO대표 |
| 13:35 ~ 14:00 | Q&A - 참석 기자 전체 |

◆ 조사개요

| | 일본 여론조사 | 한국 여론조사 |
|--------|---|---|
| 조사지역 | 일본전국 | 한국전국 |
| 조사대상 | 18세 이상 성인 남녀 |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
| 표본추출방법 | 일본 전역 50개 지점. 한 지점당 표본 수는 20명. 전국의 성, 연령대별 구성비에 맞추어 할당. |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2020년 8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
| 조사방법 | 방문유치회수법 | 조사원에 의한 대면면접조사법 |
| 조사기간 | 2020년 9월 12일 ~ 10월 4일 | 2020년 9월 11일 ~ 9월 25일 |
| 유효회수표본 | 1,000명 | 1,006명 |

◆ 제8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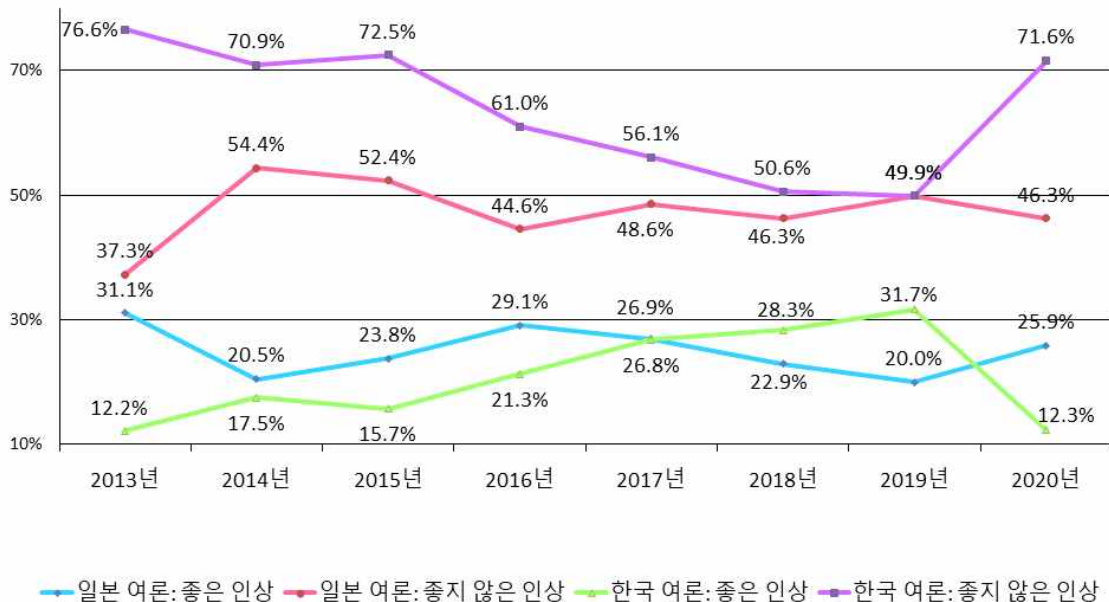
1. 한국의 일본 호감도 급락, 그러나 한일관계 중요성 인식은 여전

-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19.4%p 급락, 비호감도 21.7%p 급상승
-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하락추세에서 반등, 예상외의 반전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2019년 49.9%에서 71.6%로 급증하였다.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상은 2019년 31.7%에서 12.3%로 급감하였다. 한국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2015년 이후 증가 추세였으나(2015년 15.7% → 2019년 31.7%), 2020년 12.3%로 급락했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2015년 72.5%에서 2019년 49.9%로 하락추세를 나타냈으나, 2020년 71.6%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2015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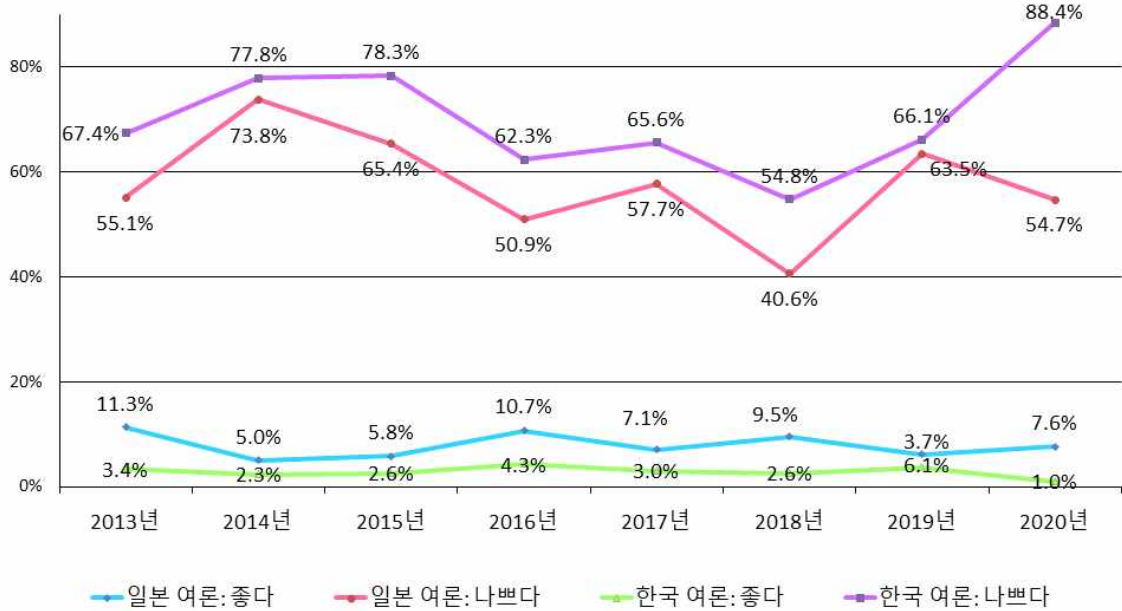
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긍정적 인상은 상승하였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지속적으로 하향추세였으나(2016년 29.1%→ 2019년 20.0%), 2020년 호감도가 25.9%로 5.9%p 반등하였다.

[그림 1] 상대국에 대한 인상(2013-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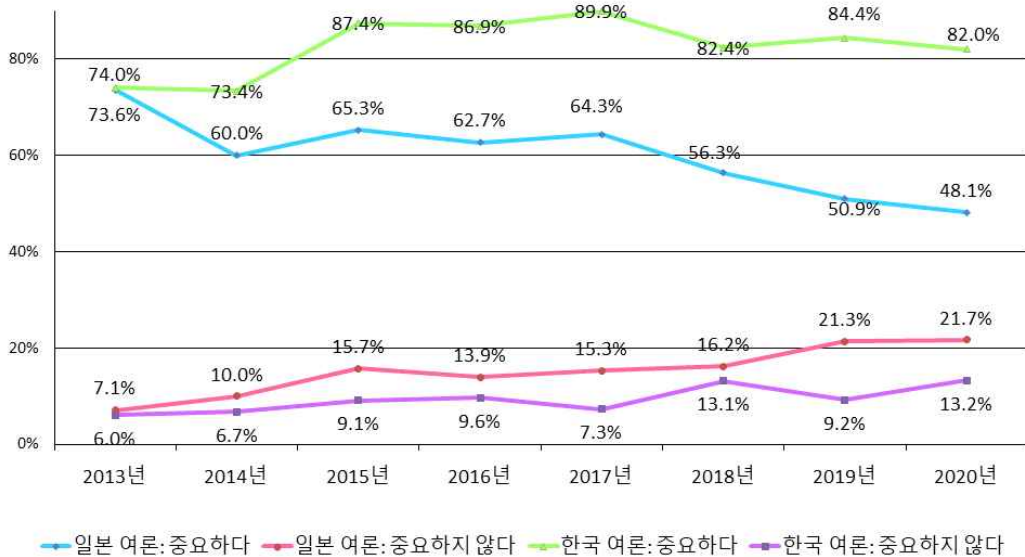
- 현재의 한일관계 평가 역시 호감도와 비례해 나타나고 있음

[그림 2] 현재의 한일관계 인식, 2013-2020



- 한국의 한일관계 중요성 변하지 않아, 일본 경시론은 아님.
- 반면, 일본인의 '한국의 중요성' 인식은 계속 낮아져

[그림 3] 한일관계의 중요성(2013-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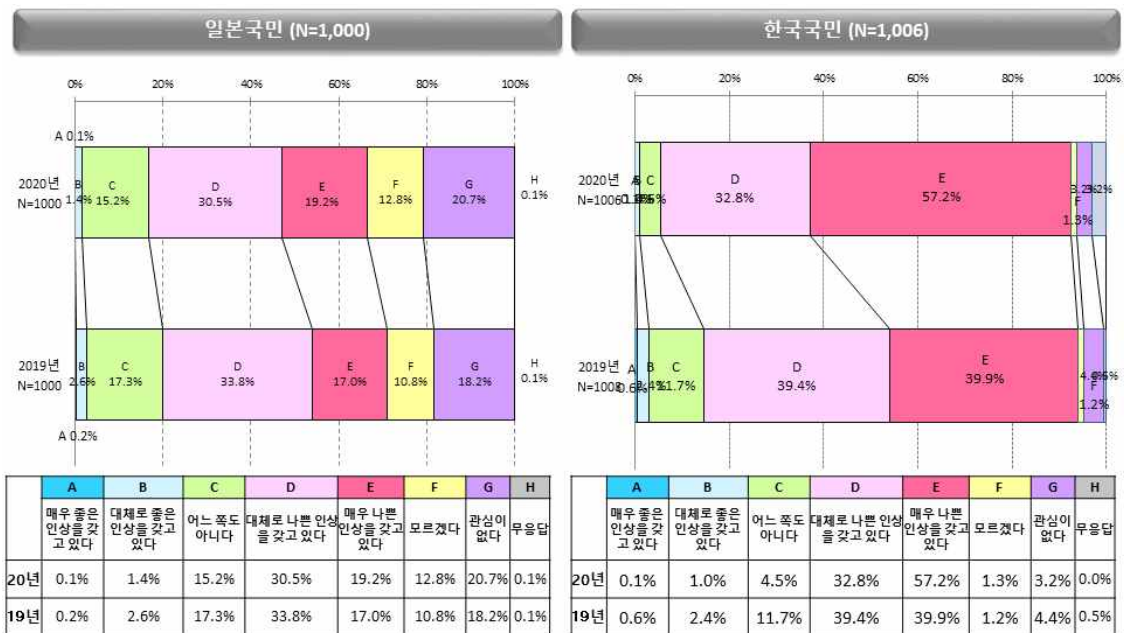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낮아지는 반면, 한일관계는 중요하다는 응답이 82%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호감도는 낮아졌지만 중요성은 변함없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48.1%로 나타나 조사시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에서 한국 경시론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2. 상대국 정부에 대한 호감도 1%대, 상대국 정부의 자국에 대한 대응 평가 2.8%(일본), 4.7%(한국)

- 한국과 일본의 아베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1%대
- 한국의 아베 총리에 대한 비호감도 조사기간 중 최고치 기록(90%)
 - [한국] 한국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인상, 호감 1.1%, 비호감 90%
 - [일본] 일본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상, 호감 1.5%, 비호감 4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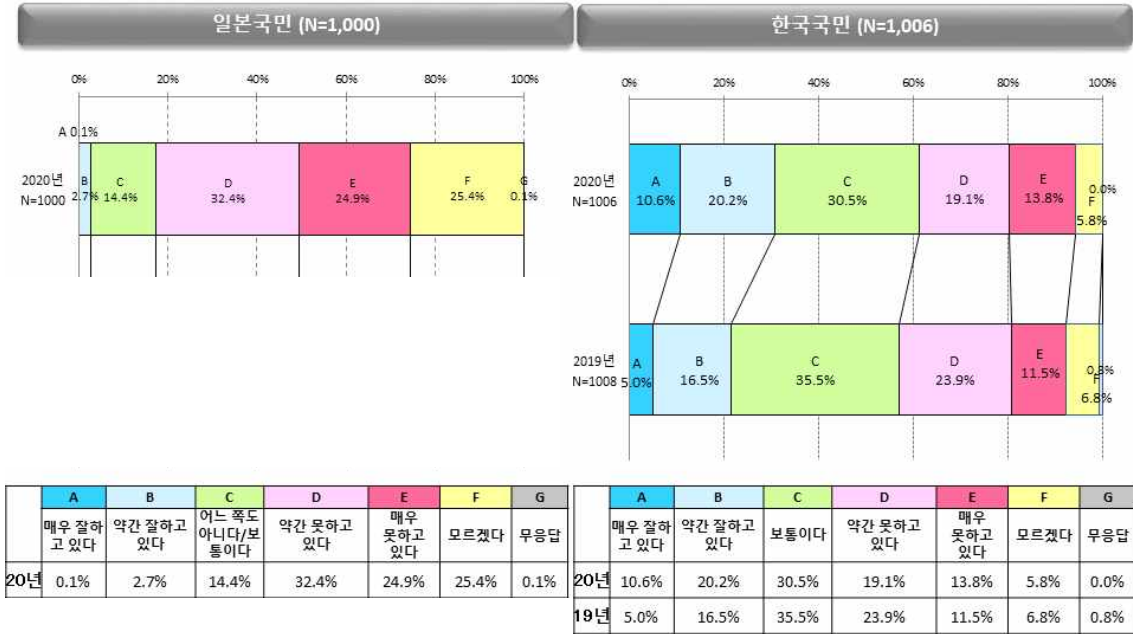
[그림 4] 상대국 정상(아베 신조 총리/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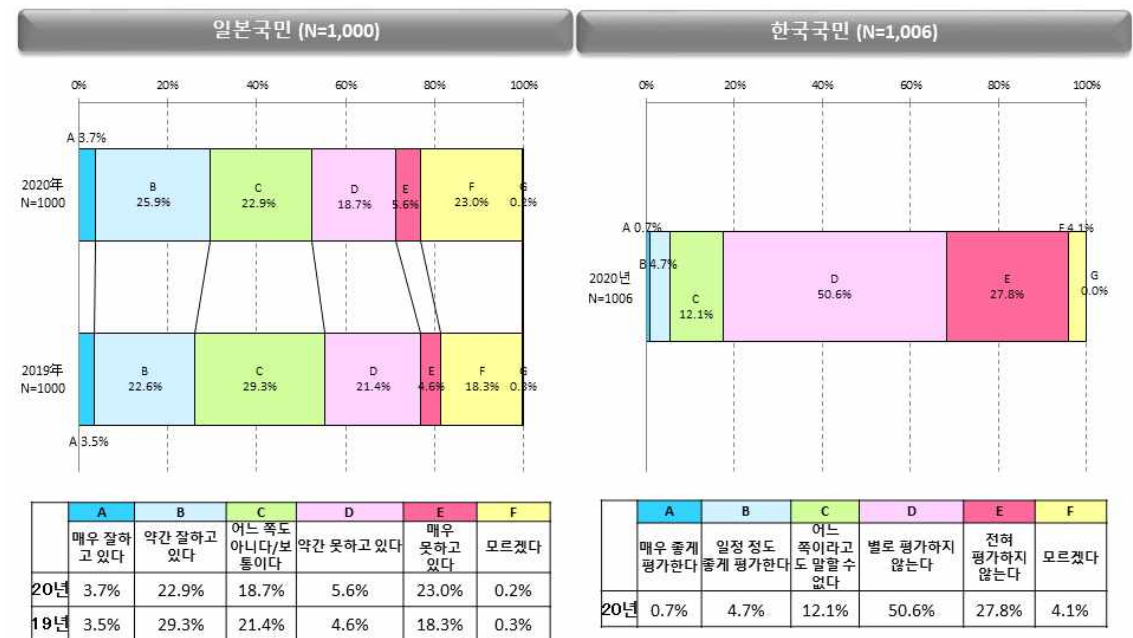
-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한 일본국민의 평가, 아베 정부의 대한정책에 대한 한국국민의 평가는 대단히 낮음
 - [한국] 아베 정부 대한정책: 부정적 평가(78.4%) vs. 긍정적 평가(5.4%)
 - [일본] 문재인 정부 대일정책: 부정적 평가(57.3%) vs. 긍정적 평가 (2.8%)
- 양국민 모두 상대국에 대한 자국 정부의 대응과 태도에 30% 정도의 지지만을 보이고 있음.

- [한국] 문재인 정부 대일정책: 긍정적 평가(30.8%) vs. 부정적 평가(32.9%)
- [일본] 아베 정부 대한정책: 긍정적 평가 (26.6%) vs. 부정적 평가(28.6%)

[그림 5]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 평가



[그림 6] 아베 정부의 대한정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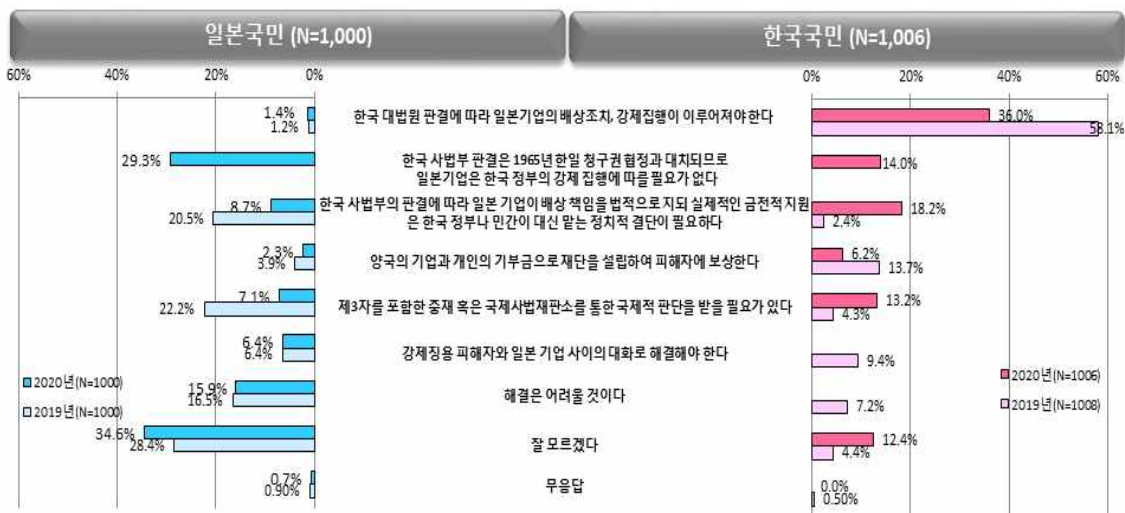
3.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방안의 변화

- 한국에서는 ‘사법부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배상조치 혹은 강제집행’을 선택한 응답이 여전히 높지만 2019년 58.1%에서 36%로 감소.
- 일본에서는 ‘잘 모르겠다’(34.6%), ‘한일협정에 배치되는 강제집행에는 따를 수 없다’는 응답은 29.3%로 나타남. 제3자를 포함한 중재 혹은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국제적 판단’을 선택한 응답이 2019년 22.2%에서 2020년 7.1%로 감소.

한국의 경우, 일본 기업이 한국의 강제집행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14%), 한국 정부나 민간이 대신 금전적 지원을 받는 의견(18.2%), 중재 혹은 국제사법재판소 판단 (13.2%) 등의 의견이 2019년보다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4.6%로 전체 응답자의 1/3 이상을 차지한다.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한국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배치되므로 일본기업은 한국정부의 집행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 일본 내에서 29.3%가 지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 내에서 14%가 지지하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그림 7] 대법원의 판결로 양국이 대립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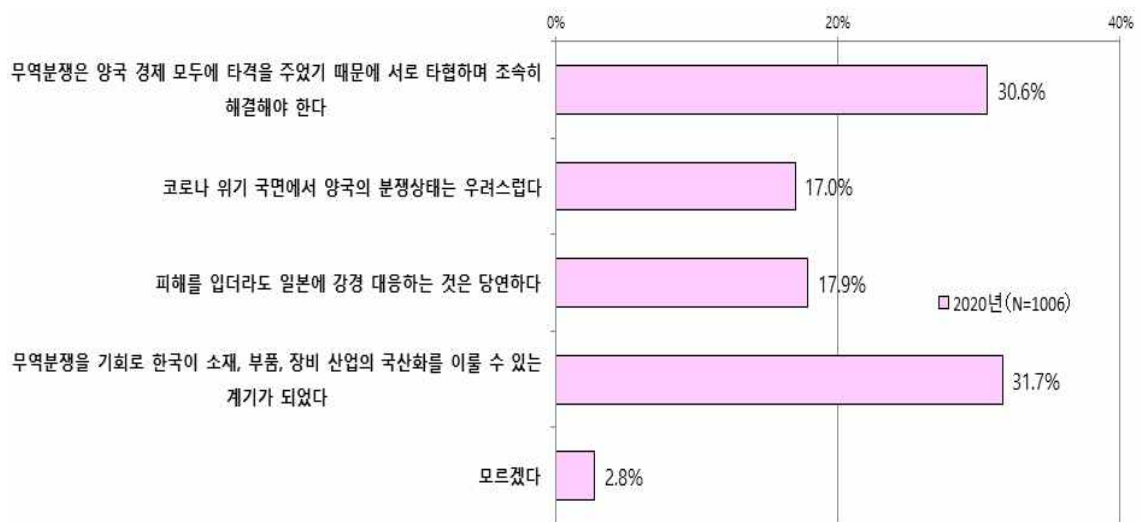
4. 2019년 무역분쟁, 방치하면 위기가 올 수 있다

- 한일 무역분쟁에 대해 강경 대응보다는 조속한 해결 선호
- 현금화 상황이 도래할 경우 상호 강경 대항조치 지지
- 수출 규제 이후 원원 협력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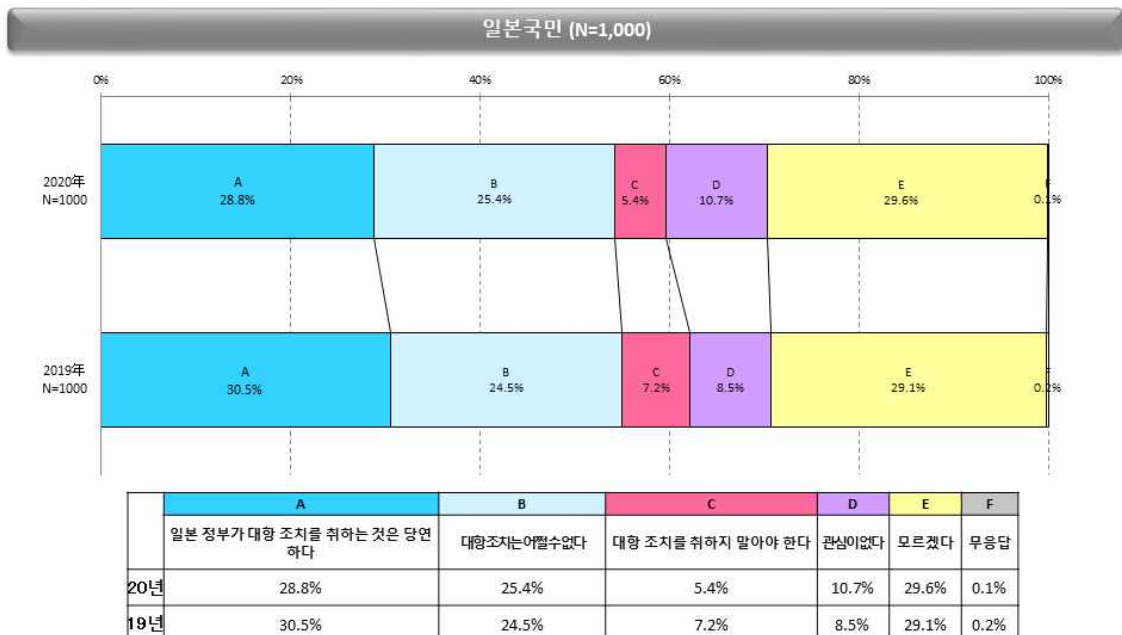
한국에서는 무역분쟁을 계기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 계기가 되었다(31.7%)고 평가하는 응답이 많았다. 다음으로 무역분쟁이 양국 상호타격, 조속히 해결해야한다(30.6%) 순으로 나타났고, 강경 대응은 17.9%에 그쳤다.

한일 경제관계에 대해서는 한국 측은 일본과 '원원가능'하다는 응답이 41.6%에서 34.3%로 감소하였고, '원원 어렵다'가 37.4%에서 45.4%로 증가하였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이 일본에 위협'이라는 답이 43.2%에서 55.1%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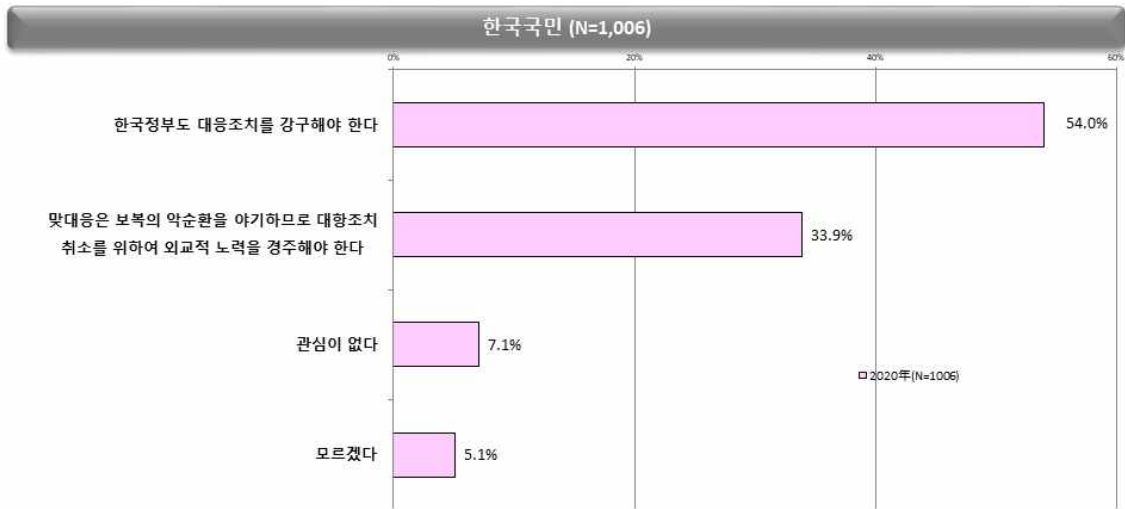
[그림 8] 한일무역분쟁에 대한 평가(한국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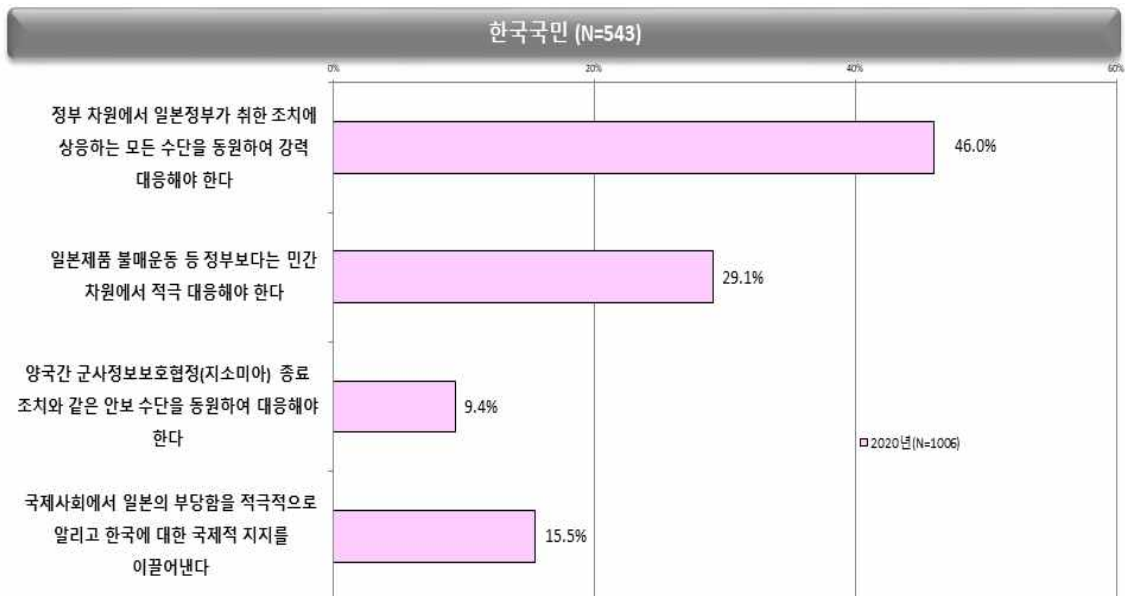
[그림 9] 일본의 대항조치



[그림 10] 일본정부의 대항조치에 대한 한국정부의 바람직한 대응



[그림 11] 한국의 대응조치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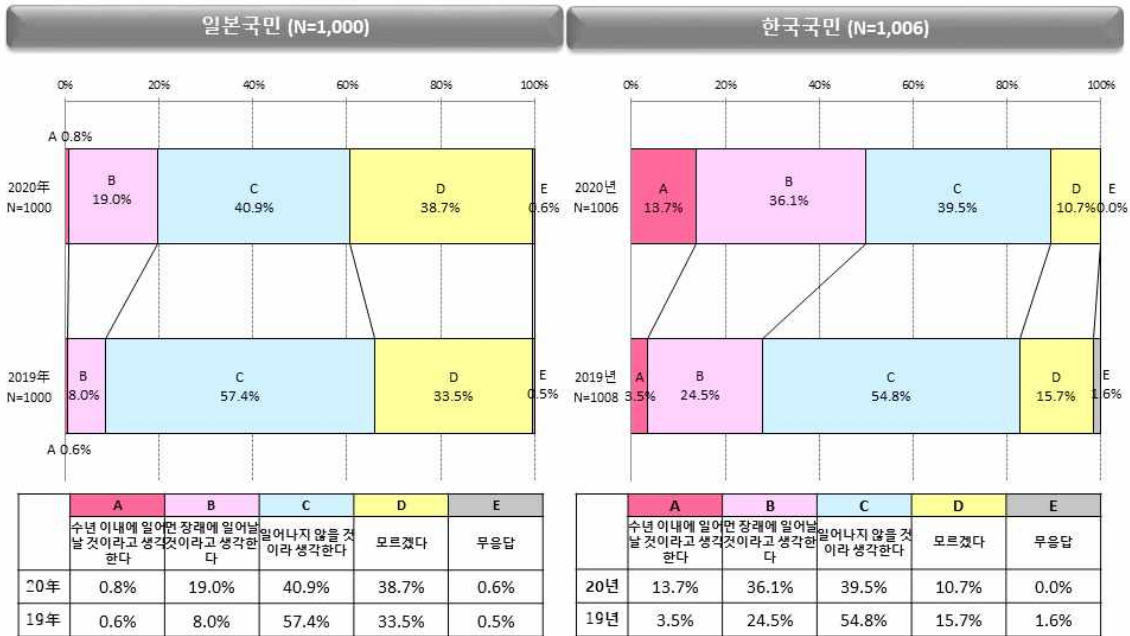
5. 한일 간 무역분쟁에 이은 군사분쟁의 가능성?

- 한일 간 군사분쟁의 가능성 높아졌다?
- 한미일 안보협력, '어느 쪽도 아니다'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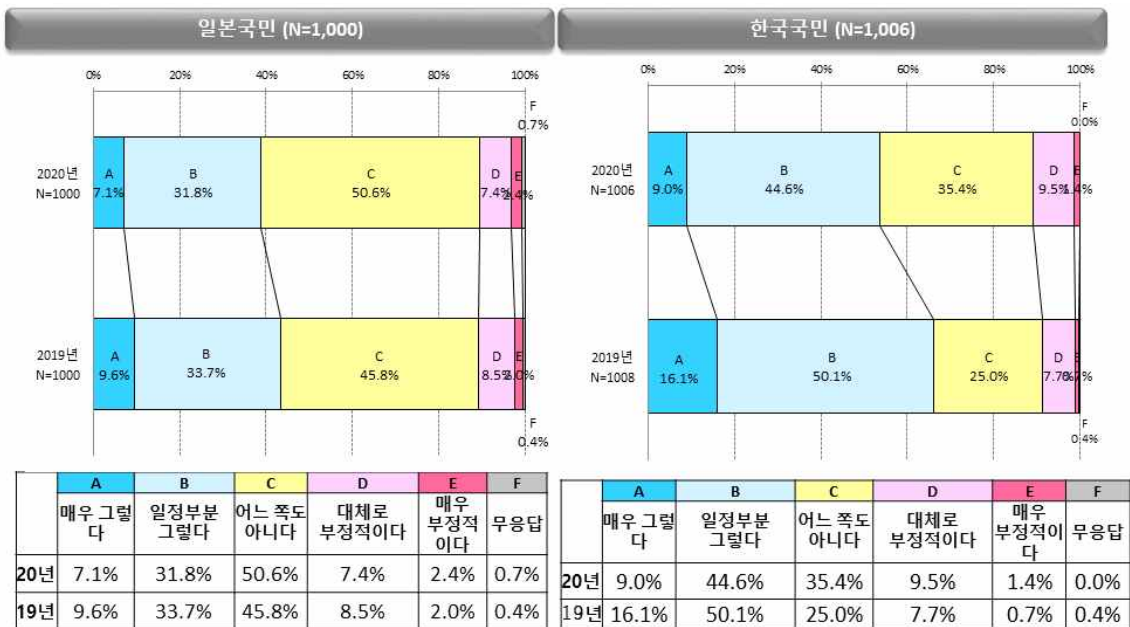
독도 주변에서 한일 군사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한국에서는 수년 이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13.7%), 먼 장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36.1%)는 응답율이 증가하였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응답은 54.8%에서 39.5%로 감소하였다.

일본에서도 양국 간 군사분쟁 발생 가능성이 먼 장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19%)가 증가하였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응답이 2019년 57.4%에서 40.9%로 감소하였다.

[그림 12] 독도 주변에서 한일 군사분쟁 발생 가능성



[그림13] 한미일 안보동맹 강화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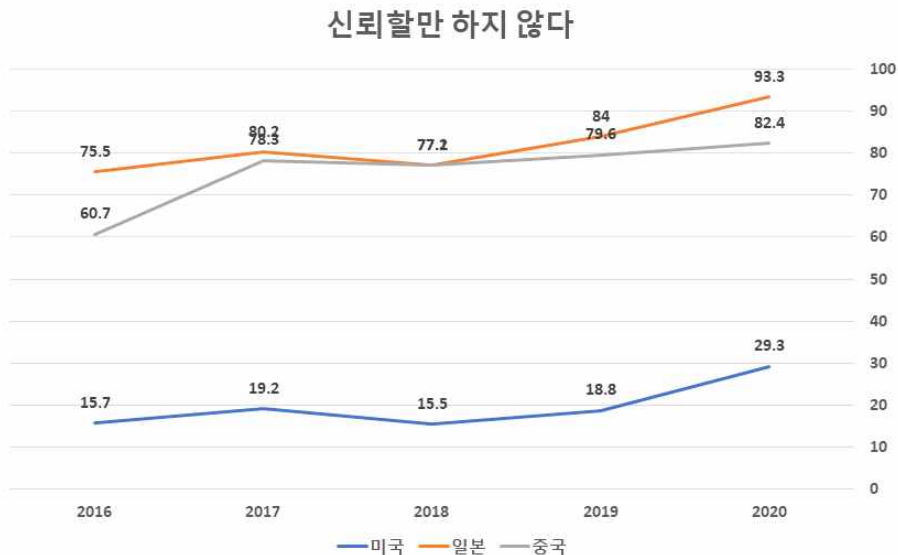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019년 66.2%에서 2020년 53.6%로 감소하였다. ‘어느 쪽도 아니다’가 25%에서 35.4%로 증가하였다. 일본에서도 ‘어느 쪽도 아니다’가 45.8%에서 50.6%로 과반수를 넘어섰다. 2019년 지소미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바 있듯이, 무역분쟁 만큼이나 군사분쟁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고, 한일 간, 한미일 간 안보협력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이 드러난다.

6. 한국인의 대외 불신 증가, 2018년의 기대와 다른 2020년 대외관계

-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불신, 2016년 조사 실시 이후 최고치
- 한국은 ‘일본과 중국 모두에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가 34.6%,
- 일본은 2019년에 ‘한국과 중국 모두에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가 36.8%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인의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고, 특히 일본에 대한 불신은 93.3%에 달했다. 미국에 대한 불신도 29.3%로 조사기간 중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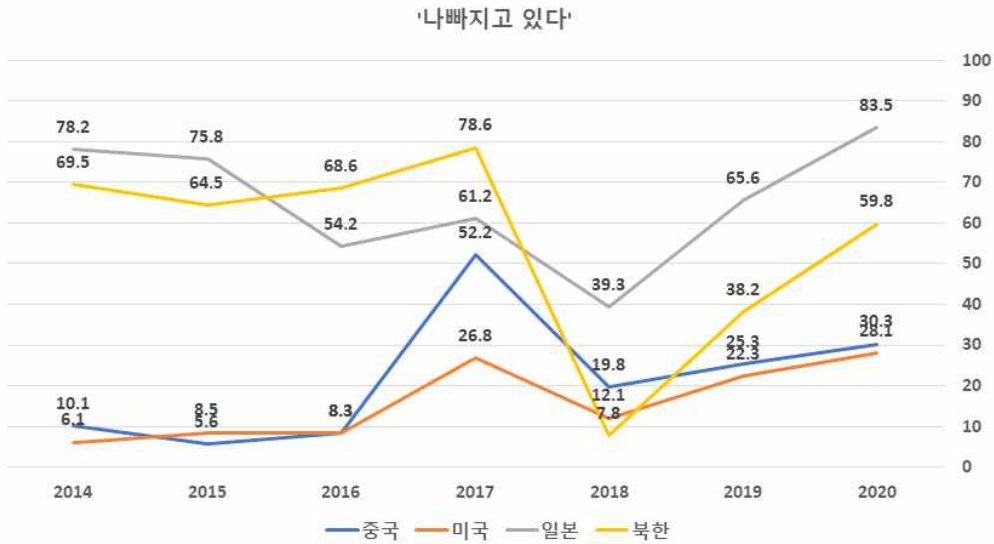
[그림 14] 중국, 미국, 일본에 대한 신뢰도 (2016~2020)



중국, 미국, 일본, 북한과의 관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주변국가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며, 2018년 대외인식은 긍정적이었으나, 2019, 2020년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그림 15] 중국, 미국, 일본, 북한과의 관계 인식 ('1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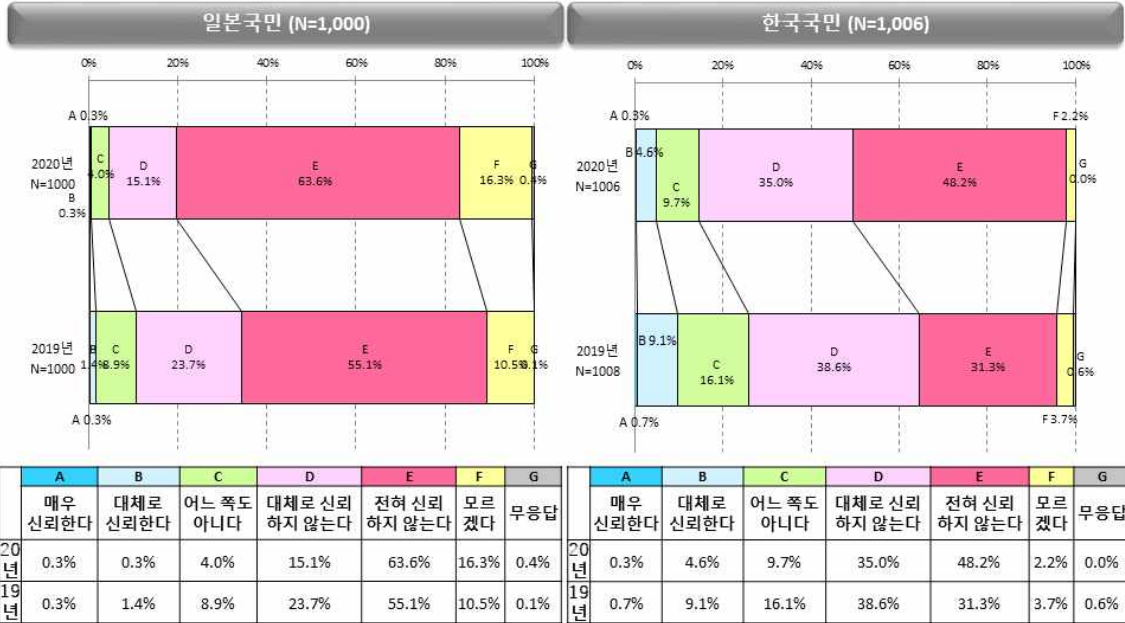
7. 북한 비핵화를 보는 한일 양국의 인식은 수렴하고 있다

- 북한에 대한 위협 한일 양국 모두 80% 넘어
- 전반적으로 한일 양국 간 북한과 비핵화에 대한 인식이 유사하게 나타나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은 한국은 84%, 일본은 81%로 높아졌다. 북한 비핵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일본 51.2%, 한국 57%로 나타났고,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도 증가하여 일본은 신뢰하지 않는다 78.7%, 한국은 83.2%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인한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일본은 69.5% 반대, 한국은 56.5% 찬성하였다. 일본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일본은 66.7% 반대, 한국은 84.3% 반대하여 일본은 자국도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높은 반면, 한국은 일본의 핵무기는 반대하지만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찬성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한일 양국 간 북한과 비핵화에 대한 인식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북한의 공식적 핵무기 국가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되며, 비핵화를 향한 대응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본 48.4%, 한국 40.3%로 나타났다.

[그림 16]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그림 17]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상황에 대한 의견

